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漁港消息

발행경 孫井植 特務 韓國漁港協會
편집인 金在克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인쇄인 金在克 TEL. 568-6651~2
ISSN 1227-7053 568-5595~6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月刊) 第103號

THE FISHING PORT NEWS

1996年 7月 25日(木曜日) (1)

海洋水産部 8月초 출범

수산資源局 수산振興局 수산물流通局 등

水産관련 3局... 고유業務 거의 存續

해양수산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7월 27일 제1백8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직제편성에 따른 인사조치를 마무리, 빠르면 8월초순 안으로 신설 「해양수산부」가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7월 27일 제1백8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직제편성에 따른 인사조치를 마무리, 빠르면 8월초순 안으로 신설 「해양수산부」가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만에 일단 절차상의 문제는 종결되는 셈이다.
그 동안 수산계에서는 「해양부」라는 신설 부의 명칭에 의의를 제기하여 「해양수산부」로 조정케 했고, 기구에 있어서도 당초의 안에서 수산부문을 다소 확대, 균형을 유지토록 했다.

일부를 맡게 되는 「수산물유통국(3개과)」으로 편성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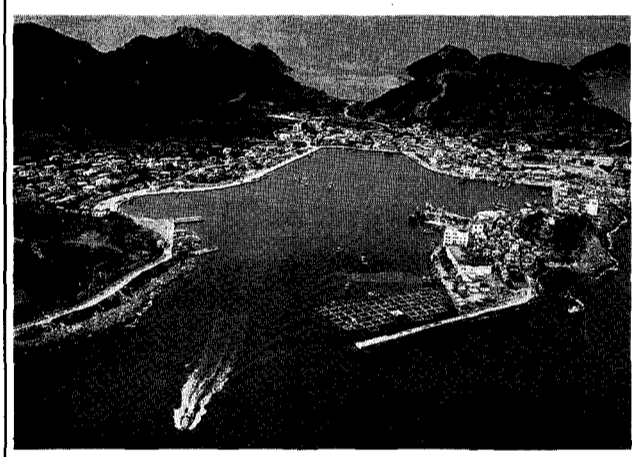
산청 고유업무 대부분이 그 대로 존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해운항만 관련직제는

「항무국(5개과)」 「항만건설국(6개과)」 「선원선박국(7개과)」 등 3개국을 둘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漁港, 法定港 검토

수산청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어항을 법정어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 오며 따라 어항법 개정시 내무부 소관인 소규모어항을 법정어항에 포함시키는 것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해안에 분포되어 있는 소규모어항은 2천12개(육지 7백40, 도서 1천382개)로서 재원부족으로 개발이 미미하여 어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해운항만 3국, 수산 2국 등 5국을 검토했으나, 행정 수요가 많은 수산이 2국으로 편성될 경우 문제 발생소지가 많다고 보고 수산청 업무를 2국에서 3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직제개정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수산 관련 직제는 현 생산국 기능을 맡게 되는 「수산자원국(5개과)」, 수산정책국과 시설관리국 업무 일부를 합친 「수산진흥국(4개과)」, 수산정책국 기능

「해양부」의 명칭이 결국 「해양수산부」로 결정이 났다. 이는 당초의 준비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무시되었던 수산부문이 이제 제자리를 찾게됨으로써 21세기 수산해양대국으로서의 발전을 기약하는 한편, 우리나라 수산사에 큰 획을 긋는 일대의 전기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보고 많은 수산인들은 과거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허탈해 하고 있다. 아니 수산인들의 요구대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허탈해 하더니... 이런 질문과

은 수산인쪽으로 넘어왔다는 뜻이다. 이것을 멋진 슈팅으로 연결하느냐, 아니면 실축하고 마느냐는 전적으로 수산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병폐가 돼버린 부처 이기주의, 혹은 집단 이기주의 방향으로 몰고 가서는 안되겠지만 몇몇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차지할 것은 차지해야 하는 수순을 마땅히 밟아야 옳다는 말이다.
그동안 어항협회가 기회있을 때마다 부르

融和 大동團합으로 이룬 快學

海洋水産部발족 수産振興 새轉機 삼아야

의문을 갖는 사람도 적지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산인들의 심정은 그렇지 않다. 처음부터 너무도 당연한 현실을 놓고 왈가왈부하여 수산인들의 진을 빼놓은 그 저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찾어온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수산인이 단결에서부터 비롯됨을 우리 모두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같이 우리의 수산업이 피폐되고 맥을 못추는 단계에 이른 것은 우리 어민들이 부릴 언덕, 다

그렇지만 과정이야 어찌됐든 이제 명백한 결과는 도출이 됐다. 늦게나마 「해양수산부」의 결정은 다른 의미로 우리나라 수산업에 대해 사려깊이 생각 못한 데 대한 사과의 일단이요, 앞으로 수산과 해양을 통틀어 수산해양대국으로 진일보 하겠다는 의지의 소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힘과 뜻을 모아 준 많은 수산인과 국회 및 정부 관련부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이제 꼼꼼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은 시작에 불과하므로, 수산인은 이번 해양수산부 신설과 관련하여 크게 반성하고 각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은 건건마다 사안마다 발생할 것이 너무도 뻔하기 때문이다.

바다 함께 일구고 가꿔야
舊殼탈피 發想 전환에 好機

海洋國으로 모처럼 跳躍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차례에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명칭만 단순히 「수산」이란 낱말이 붙었을 뿐이지 허수아비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다같이 바다를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업과 해양산업은 많은 점에서 서로 교류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차이점도 많다. 바로 그점을 제대로 인식시켜 줌으로써 앞으로 이번 부서 명칭 문제와 같은 필요없는 신경전을 벌이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는 뜻이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이제 해양수산부라는 커다란 배가 출범하게 됐다. 다가오는 통일조국의 앞날과 새로운 태평양의 시대가 열린다는 21세기는 분명히 바다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제는 그 동안의 갈등, 오해, 불화 등의 좋지 못했던 관계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하루빨리 융화, 화합, 대동단합해야 할 것이다.

구각을 탈피하고 발상을 완전히 전환하여 해양수산부 시대에 우리 모두 적극 대비하도록 하자. 이제 수십년간의 그늘에서 벗어난 좋은 기회가 우리앞에 다가오지 않았는가.
정말 모두 함께 뛰어보자.

漁港청소선 모두 管理運營

主碇泊港 7곳으로 分散
漁港환경정화 積極나서

韓國漁港協會
한국어항협회는 7월 10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6조3항에 의거, 수산청 어항사무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어항청소선 4척(동해어항사무소 어항906호, 서해어항사무소 어항901호, 남해어항사무소 어항903호, 어항904호)을 위탁받음으로써 수산청 어항청소선 7척을 모두 관리운영하게 됐다.

정항에서 남쪽으로 전북 부안군 위도항까지 14개항) △어항902호=목포항(청소구역: 전남 영광군 계마항에서 전남 해남군 어란진항까지 9개항) △어항903호=녹동항(청소구역: 전남 완도군 보옥항에서 동쪽으로 전남 여천군 남도항까지 12개항) △어항904호=여수항(청소구역: 전남 여천군 돌산항에서 동쪽으로 경남 남해군 미조항까지 7개항) △어항905

호=통영항(청소구역: 경남 남해군 미조항에서 동쪽으로 경남 거제군 외포항까지 13개항) △어항906호=포항항(청소구역: 부산시 다대포항에서 북쪽으로 경북 울진군 죽변항까지 15개항) △어항907호=주문진항(청소구역: 강원도 삼척시 임원항에서 북쪽으로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까지 12개항)이다.
(2면에 사진상보)

漁港개발 研究調査의뢰 農經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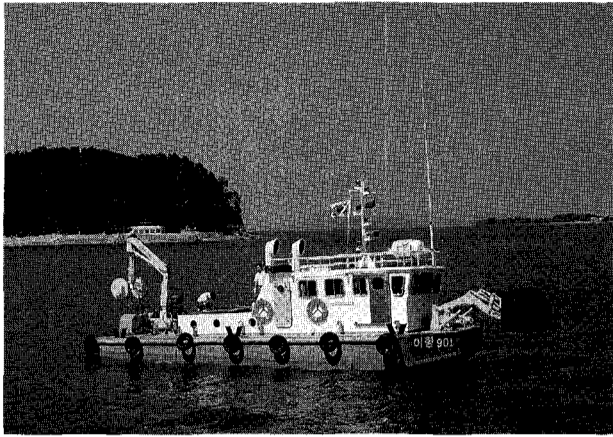
수산청은 장기적인 어항종합개발을 위해 어항지정개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게 의뢰했다.

발하기 위해 어항개발의 수요를 분석하고, 어항개발정책 방향설정 등을 위한 과업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한 것이다.

수산청은 앞으로의 어항개발을 종합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국토개발계획, 지역개발계획 등 각종 정부시책은 물론, 특히 어항을 관광, 교통, 유통기능 등 해역별 지역별 특성에 부합되도록 개

수산청은 또 어항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정부주도의 개발뿐 아니라 민관합동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어항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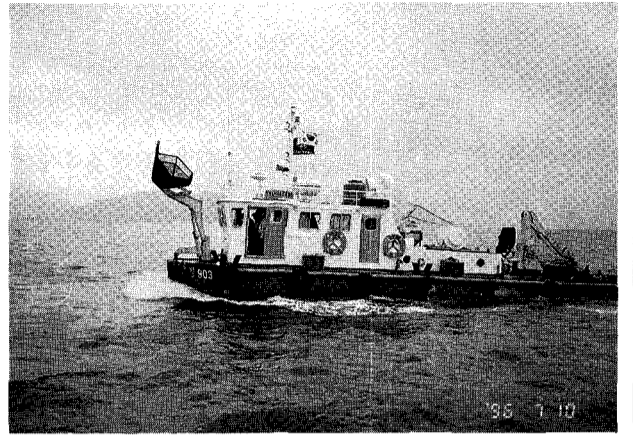
한국어항협회서 관리운영하는 어항청소선 7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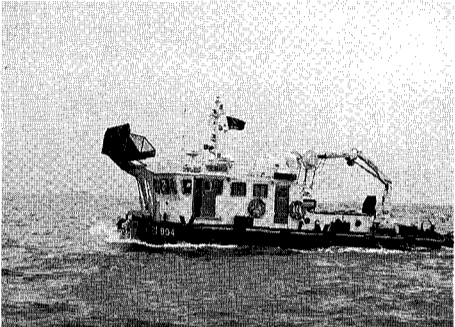
▲어항901호(군산항)



▲어항902호(목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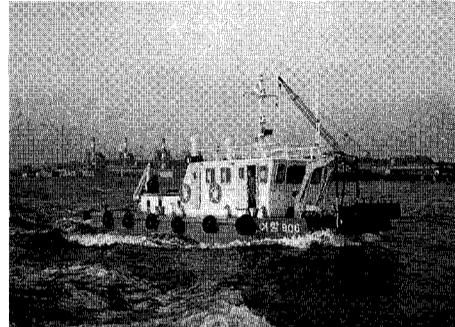
▲어항903호(녹동항)



▲어항904호(여수항)



▲어항905호(통영항)



▲어항906호(포항항)



▲어항907호(주문진항)

機能・福祉시설 效率配置

全國서 24個港 확정 市·道·水協에 통보

수산청은 1·3층어항내에 기능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 어항기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어민복지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이를위해 수산청은 전국의 1·3층어항 89개소 중 이미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41개항과 순수대피항 17개소, 97년도 정비대상항 7개소를 제외한 24개항에 대한 항별 시설배치계획을 확정, 시·도 및 해당수협에 통보했다.

수산청의 이같은 계획은 시·도, 수협 및 어촌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것으로서 관공비용을 어업인의 소득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청이 시설배치계획을 확정된 24개항은 다음과 같다.

△부산 : 다대포항 △강원 : 대진, 아야진, 대포, 남애, 사천진, 금진, 덕산항 △충남 : 안흥항 △전북 : 격포항 △전남 : 계마, 어란진, 마량항 △경북 : 사동, 구계, 양포항 △경남 : 정

자, 방어진, 능포, 맥전포, 육지항 △제주 : 도두, 추자, 모슬포항

下都給 위반 制裁를 強化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어긴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접수된 하도급법 위반 신고건수는 지난 94년 3백16건에서 95년 4백26건으로 35%가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중 2백73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3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종전까지는 범위반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경우 경고조치를 취해왔으나 앞으로는 과거 범위반사실이 많은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범위반사실통보, 범위반사실공표, 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고발, 시정명령, 경고 등의 조치유형 및 범위반정도, 범위반금액, 범위반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발주처 등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이나 영업정지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일본 미쓰이 건설은 팩스밀리를 이용해 전국건설현장에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전국 기상정보팩스배신시스템'을 개발, 오는 9월부터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본격 가동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날씨에 좌우되는 현장의 작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미 미쓰이건설 사내 일부에서는 실용화되고 있다.

미쓰이 건설은 앞으로 측량이나 건설 컨설턴트 업자를 주 대상으로 보급해 나가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일본기상협회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전국 약 8백40개소의 강수량, 풍향, 풍속자동관측소에서 나오는 국지적인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시스템은 기상협회의 일반용 서식과 건설업용 서식에 의한 배신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미쓰이건설은 이 시스템을 대상구역, 정보내용 등을 토대로 관동관, 전국관, GPS 위성에 의한 것 등 3개의 형태로 나누고 있다.

미쓰이건설은 이미 지난 94년 관동의 현장에서 토목공사용 기상정보 팩스배신을 개시했는데 현장으로부터의 반응이 좋아 지난 달부터는 풍속, 풍향을 포함한 건축용 기상정보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경판은 사내용으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잔손이 많이 가는 측량, 건설컨설턴트업자 등의 수요에 반드시 적합하지는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미쓰이건설은 이달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사외에 대해서는 오는 9월까지 전국관, GPS판을 제공키로 했다.

팩스로 精密氣象정보제공

日, 미쓰이建設 풍속·풍향등 建築용 정보도

정부 調達市場 개방 對備 法令 制度 정비作業나서

정부는 내년의 국내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대비, 조달관련법령 및 제도정비작업을 오는 11월까지 완료키로 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매각 대금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아래 민영화 방안을 오는 8월중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나용배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용배 부총리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사, 물품 및 용역분야의 정부조달시장개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정부조달제도 국제화추진기획단을 운영, 제도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국가계약법령 특례규정, 국가계약법시행령 등의 조달관련법령 제정안을 빠르면 이달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나용배 부총리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달부터 상장기업과 특수관계인 계열회사를 포함한 지배주주 간의 가지급금, 대여금, 지급보증, 출자, 증권과 부동산의 거래내역을 즉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경제법령이나 제도중 애매모호하거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인가, 허가, 승인, 등 7종 2천7백건에 대한 투명성 제고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國內法 우선 原則... 紛爭소지 最小化

建設시장 向方에 대응

건설시장 개방이후 공사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입찰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가 비용을 부담하되 실시설계와 시공을 묶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보상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최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차원에서 건설시장개방에 따른 각종 조달제도의 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나 공사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 법률문제를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일일이 명문

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입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법 우선 원칙을 명확히 해 분쟁소지를 최소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현행 국가계약법상 국제입찰의 경우 계약과정상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공사와 정상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어 이에대한 대책도 마련중이다.

건교부는 이와관련 입찰공고에서 계약체결이전까지의 분쟁은 재경원 산하의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계약체결이후의 분쟁은 건교

부 산하의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건설분쟁중재원)'에서 조정업무를 맡도록 계약관련조항을 신설하는 제도를 개선책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계약이 일단 체결된 다음 관계법령이 폐지돼 공사비의 증감이 있을 경우 실비수준에서 이를 보상해 주도록 계약조건에 명기하는 한편 입찰준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부담은 입찰참가자가 지되 실시설계와 시공을 한데 묶어 발주하는 때는 발주자가 설계비를 보상해 주도록 공사입찰유의서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동 정



田允赫 수산청장

▲전윤철 수산청장은 7월 5일 수산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상반기 우수 모범 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거행,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을 위해 더욱 분발해줄 것을 당부, 8일에는 국회개원에 맞춰 국회농림수산위원들을 예방, 9일에는 해운산업연구원에서 주최한「WTO체제하의 새로운 관세행정」을 주제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 11일에는 신한국당 당사에서 국회농림수산분과위원장 당정책조정위원장 농림수산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청이 요구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회에 참석하여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



孫井植 한국어항협회장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7월 1일 인촌기념관에서 개최된 고려대 언론대학원 주관「21세기를 위한 국가경영」에 대한 이흥구 신한국당 대표위원 초청강연에 참석, 10일에는 수산청 어항청소선 4척 추가인수와 관련 선장 기관장 등 승선원 11명을 선발 인사발령장을 수여하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줄 것을 당부, 12일에는 노보텔 엠버서더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농어민신문 주관, 강운태 농림수산부장관 초청강연「세계화 시대-농정개혁과 21세

기능업비전」에 참석, 25일에는 해양수산부 발족과 관련, 국회의장, 3당대표, 원내총무를 비롯한 관련의원을 방문하고 정부조직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촉구.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7월 3일 일본 전어련 히타카간지 회장의 예방을 받고 양국 어업현안을 토의, 4일에는 중국 수산총공사 빠오성 칭 총경리와 만찬을 통해 한중 수산교류 촉진을 위한 어업협력방안 등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 6일에는 농협 강북농수산업본부에서 개최한 「국제협동조합의 날」기념식에 참석, 19일에는 34분기 새어업인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백혈병 수술비를 마련 못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조합원자녀 2명에게 「사랑의 동전모금액」각 5백만원 씩을 전달.

▲안성봉 한국어선협회장은 7월 13일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생활복지관에서 전임직원과 함께 친절봉사 의식개혁 결의대회를 개최, ▲배환갑 영생건설주식회사 회장은 7월 11일 통영관광호텔에서 열린 대한팔각회 월례회에 참석, 11일에는 가야보존회 세미나에 참석,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7월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생보호공단 범죄예방자원봉사 한마음 대회에 참석, 4일에는 아메리칸센타에서 개최된 미국 독립 220회 기념리셉션에 참석, 8일에는 조선대학교 제10대 김기삼 총장 취임식에 참석, 18일에는 세계잼버리 수련장에서 개최된 4H중앙연합회 주관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에 참석, 24일에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세계검도회 이사회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7월 5일 전남 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기관 기업체간의 자매결연의뢰 및 합동 자매결연식에 참석, 이어 광주농고 총동창회 이사회에서

장학금 5천만원을 기탁.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7월 3일 대한건설협회 실무위원회에 참석, 7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시 도회장단 긴급간담회에 참석, 19일에는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2002월드컵축구경기 개최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7월 5일 한국지역정책연구원이 주관한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초청토론회에 참석, 12일에는 능률협회가 주관한 통상산업부 차관 초청세미나에 참석, ▲장정연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7월 5일 한국지역정책연구원이 주관한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초청토론회에 참석, 10일에는 제주학생회관에서 열린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 제주협의회에 참석, ▲임제호 삼오종합건설주식회사 사장은 7월 1일 제주대학교해양과학대학이 주관한 「21세기 해양이용과 개발전략」세미나에 참석, ▲양성후 세기건설주식회사 회장은 7월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생보호공단 범죄예방자원봉사 한마음 대회에 참석.

직원기입

■단체
▲주식회사대양(대표이사 박봉영). 주소 :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709번지, 전화번호 : (0361) 56-6000-9.
▲서원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송기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9-6 평환빌딩 302호, 전화번호 : 522-7811-3.
▲삼척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동훈)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영준)

▲강릉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정창덕)
▲서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진태구)
▲부안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동술)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허중무)
▲강진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임용택)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오무정)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윤덕춘)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정병남)
▲영일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삼만)
▲거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정상욱)
▲기장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정득)
▲서남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태곤)
▲제3,4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인규)
▲전남정치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성남)
▲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임덕섭)
▲나로도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최성필)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복만)

학족

▲이동원씨(해운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의 장녀 시은 양은 7월 27일(토) 12시 압구정동 소재 광림교회에서 화축을 밝혔다.

인사

▲정동호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최근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처를 옮겼다.
▲김순도 전 한국네드로드 라인주식회사 사장은 최근 회장으로 취임했다.
▲신연한 전 강남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는 최근 협신상호신용금고 감사로 취임했다. 전화번호 : 547-9898.

이전

▲수협 전북도지회는 7월2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475-10번지의 신청사로 이전했다.
▲냉동물제조수협(조합장 김영택)은 최근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51-158번지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전화번호 : 458-9191, 팩스 : 458-9840.

주소변경

▲정영재씨(수산청 감사담당관)는 최근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61-18 진한빌리지 202호로 자택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 747-1579.
▲이기인씨(현우회 사무총장)는 최근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현대아파트 304동 304호로 자택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 453-8860.
▲박대현씨(한국국방연구원 안보연구위원)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76번지 청솔마을 계룡아파트 112동 302호로 자택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 (0342) 713-7592.

의비남부

<감사합니다>
■단체
▲영생건설주식회사(회장 배환갑)
▲주식회사대양(사장 박봉영)
▲삼부토건주식회사(회장 조남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종식)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동기)
■개인
▲오진수씨(전 수산청 과장)
▲홍호선씨(수산청 관리과)
▲안창수씨(전 법제처 국장)
▲손일수씨(주식회사건일엔지니어링 사장)
▲이태일씨(수산청 서해어항사무소)
▲신석순씨(수산청 남해어항사무소)
▲김기평씨(보험감독원 부장)
▲김상목씨(목원화원 사장)
▲김세열씨(한국감정원 안양지점장)

▲김정환씨(주식회사청열실업 사장)
▲박호중씨(창립산업주식회사 사장)
▲안중관씨(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상무이사)
▲이수연씨(주식회사LG텔레콤 이사)
▲신관수씨(한국수산업노동조합전무이사)
▲윤병무씨(한국도로공사 기획본부장)
▲이상우씨(일은증권강남지점 과장)
▲임승혁씨(대한부동산신탁주식회사 부장)
▲정해용씨(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 이사)
▲이남교씨(수산청 어정과)
▲유영해씨(한국어항협회 자문위원)
▲손광식씨(주식회사건일엔지니어링 이사)

협회인사

▲한국어항협회는 8월 1일자로 황승택 관리운영부 과장을 관리운영부 차장으로 승진 발령.
▲한국어항협회는 어항청소선 4척 추가인수와 관련, 7월 10일자로 어항청소선 승선원을 신규 채용하고 7척의 청소선에 대한 승선원을 조정 발령했다.
△어항901호 : 선장 최동립, 기관장 문상진, 기능직 황병립 △어항902호 : 선장 김일환, 기관장 장두산 △어항903호 : 선장 조동식, 기관장 윤종환 △어항904호 : 선장 박만성, 기관장 김봉윤, 기능직 김유원 △어항905호 : 선장 하용만, 기관장 진용우 △어항906호 : 선장 김성훈, 기관장 이병석 △어항907호 : 선장 최일선, 기관장 김용호, 기능직 서상화.

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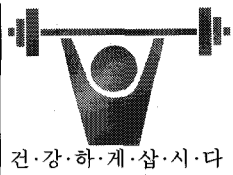
▲김병식씨(어민신문사 회장)가 7월 1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장지는 전북 군산시 임피면 봉황공원묘지.
▲민성규씨(수산청 어항과)는 7월 1일 모친상을 당했다. 장지는 충남 논산군 두마면 부남리 선영.

시찰단 모집

한국어항협회는 우리나라 어항어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9차 해외선진어항어촌 시찰단을 모집합니다

- ◆ 시찰 일시 : 1996. 10. 29(화)~11. 6(수) (8박 9일)
- ◆ 시찰국 및 시찰어항
 - 일본 : 나가사키 - 新長崎어항
구마모토 - 富岡어항, 二江어항
오끼나와 - 宜野灣어항, 泊어항
 - 대만 : 기룽항, 팔두지 어항
 - 싱가포르 : 쥬랑항
- ◆ 모집대상 : 어항관련공무원, 시공업체, 용역업체, 관련단체 임직원
- ◆ 모집인원 : 30명
- ◆ 기타문의 : 한국어항협회 사무국 <(02) 568-5595, 5596>





광견·벌·거미 등에 물렸을때(I)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조속한 치료 중요

1. 동물(개, 고양이, 소, 박쥐 등)

광견병은 타액(침)속에 있는 광견병 바이러스균에 의해 전염되는 병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광견병 바이러스균은 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양이, 소, 박쥐에도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광견병에 걸려있는 동물에 물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주위의 동물이 광견병에 걸려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야생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것은 위험하다.

아이들은 대개 동물을 놀리거나 가해하려다 물리는 경우가 많고, 건강한 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물리는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자극을 주지 않았는데도 물렸다면 그 동물은 광견병에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람을 문 동물은 될 수 있는 대로 꼭붙잡아서 약 10일간 광견병의 증상이 발생하는지 수의사와 함께 관찰해야 한다.

동물 광견병의 증상이란 무목적 동작과 침을 흘리면서 상대마비 현상을 보인다. 사망은 보통 발병후 2-5일 안에 일어난다.

사람의 발병초기 임상증상은 두통, 어지러움, 목의 뻣뻣함, 권태, 졸음, 호흡곤란이 오며 물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병이라고도 한다. 침을 흘리고 미친 짓과 경련이 일어나며 이어서 혼수, 마비, 사망에 이른다. 만일 10일 이후까지도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그 동물은 광견병이 없다고 간주할 수 있다.

예방법으로는 예방접종주사

가 있는데 광견병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사람들 가령, 수의사, 동물취급자, 특수검사실요원, 광견병 만연지역의 주민, 특히 어린이에게 필요하다.

2. 벌 사람에게 생명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심한 과민성 반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곤충의 하나가 벌이다. 그것은 꿀벌, 말벌, 장수벌, 흑색 또는 황색벌과 불개미 등을 포함한다.

꿀벌은 한 번밖에 쓸수 없지만 꿀벌을 제외한 벌은 독침을 여러개 보유하고 있으므로 반복하여 쓸수가 있다. 임상증상으로는 국소동통, 종창, 홍반, 전신열, 두통, 어지러움, 불안감, 두드러기, 쇠약감, 발한, 심한 오심 등이 나타나며 병원을 찾기전 가정에서 상처를 짜거나 누르지 않도록 해야한다.

3. 거미 여름철 야외에서 거미에게 물리는 수가 많다. 거미독은 주로 신경독으로 작용하며 척추신경에 작용이 집중한다. 거미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어떤 거미에 물리면 통통을 느끼고 수분내에 흥분이 나타난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전신경련이다. 어떤 거미는 물린후 6-8시간이 지나야 동통이 오므로 처음에는 물린 것을 모르고 지내는 수도 있다. 어린이에 있어서는 24-48시간내에 심한 전신증상이 나타나는 수가 있는데 발열, 오한, 쇠약, 구토증, 관절통, 점상출혈 등이 있다.

이때는 물론 병원을 찾아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거미에 물려 사망하는 수도 있으므로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漁港計劃樹立의要領

어·항·교·실

(81)

피셔리너의計劃

2.4 주요시설의 계획

2.4.1 기본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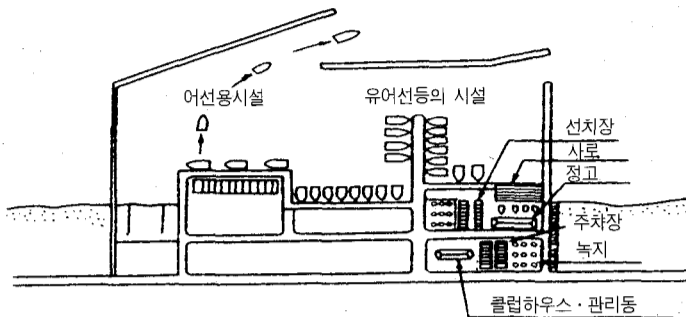
시설계획에 있어서는 이용하는 유어선등 및 이용자의 안전성의 확보, 효율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시설배치, 경관이나 친수성을 배려한 공간 만들기 등에 충분히 유의한다.

2.4.2 외곽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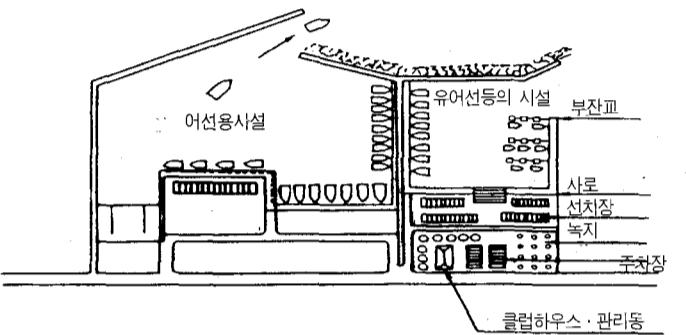
피셔리너는 대소 여러종류의 주정(유어선, 요트, 모터보트 등)을 이용하게 되므로 그림에 도시한바와 같이 박지, 항구등은 원칙적으로 어선과 따로 설치한다.

방파제의 배치에 있어서는 유어선 등의 이용자 중에는 조선키술이 미숙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출항이 안전하고도 용이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이용선박은 소형의 것이 많으므로 정온도 확보를 충분히 배려하는 동시에 연파(Mach-Stem wave), 반사파 등이 되도록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배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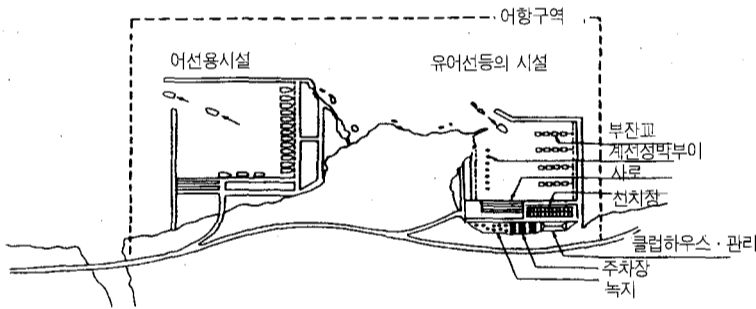
엔진이 장비 되어있지 않은 보트의 이용을 고려할 경우에는 방파제 개구부는 항풍방향에 대비하여 45°~90°의 범위가 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개구부의 폭은 요트가 풍향에 따라서는 더킹(ducking)으로 입출항하게 되도록 넓게할 필요가 있다.



(a) 피셔리너를 어항과 일체적으로 정비할 경우



(b) 기존어항에 피셔리너를 정비한 경우



(c) 어항과 떨어져서 피셔리너를 정비할 경우

〈그림1〉 피셔리너와 어항의 위치관계

〈소비자보호·생활〉

◆한강시민공원 주차장등 유료화=한강시민공원 잠실 폭심 양화지구 주차장을 유료화. 30분 기준 7백원으로 15분을 초과할 때마다 3백원씩 가산. 기존 유료였던 여의도지구는 종전 30분당 3백원에서 1천1백원(15분초과 5백원 추가)으로 인상. 공휴일은 무료운영.

◆대신 8백cc이하 경승용차의 공용주차장 이용때는 주차료 50%가 할인되고 민영주차장 주차료징수는 기존 15분단위 징수에서 10분단위로 축소.

◆금융기관 예금자에 대한 보호 강화=상호신용금고,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종전 1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소비자 피해 정보수집활동 강화=경찰서, 소방서, 종합병원 등 전국 1백37개 기관이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지정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 소비자보호원에 보고하게 된다.

◆상품권 제도=종전은 액면금액의 80%이상 써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이 60%로 낮아지고, 또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보상기준이 액면

7월1일부터 달라진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관련된 여러가지 제도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및 과세특례자 범위 확대

금액의 70%에서 90%로 높아짐(하반기중).

〈금융 세금〉

◆해외 친척 친지에 대한 증여성 송금한도 초과시 사후관리 강화=한 사람이 연간 1만달러 이상 보낼 때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부도후 6개월이 지난 어음 수표와 3년이 넘도록 받지 못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미리 낸 부가세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여신한도 관리대상 축소=여신한도 관리대상이 30대그룹에서 10대그룹으로 축소.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시행=연간 매출이 4천8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액계산서가 없어도 정부가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부가세를 내면된다.

◆부가세 과세특례자 범위 확대=부가세를 안내도 되는 사업자는 종전의 연간 매출액 1천2백만원 미만에서 2천4백만원 미만

으로 확대되었고, 매출액의 2%만 부가세를 내면되는 과세특례자 범위도 종전의 연간 매출액 1천2백만원이상 2천4백만원 미만에서 2천4백만원이상 4천8백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보험〉

◆사망 보험금 가입금액 한도 폐지=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탈수 있는 보험금 한도(5억원)를 폐지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금 인상=사망은 종전의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부상은 6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후유장애는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8월).

◆자동차 보험료 자유화 확대=사고에 대한 할인 할증률 자율화 폭이 확대되고 기본 보험료도 일정범위 안에서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개인별로 보험료 차이가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8월).

〈생활〉

◆경 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

채권 매입액 경감=경 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을 소형 자동차의 50% 수준으로 경감. 경 자동차는 신규 등록시 승합 자동차 19만5천원, 화물 자동차 10만원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민원창구 일원화=시 군 구 지적과에서 관리해온 토지 임대장과 시 구 건축과 또는 군지역의 읍면 재무계와 산업계에서 관리해오던 건축물대장을 시 군 구 지적과로 통합.

◆선박운임 할인=장애인과 노인에게는 운임의 20%이상, 중고생에게는 10%이상 할인.

◆실업급여 지급=65세 미만의 정년퇴직자, 경영합리화에 따른 명예퇴직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자 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건설 건축〉

◆부동산 실명제 유효기간 만료=남의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명의신탁 부동산이 적발되면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30%)이 부

가되며 적발된후 1년안에 실명전환을 하지않으면 이행강제금(10%)이 추가로 부과된다.

◆감정평가업 제도개선=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이 외국인에게도 개방되고 실무수습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법인 및 합동사무소를 구성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수 기준은 완화된 반면 업무영역은 확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지역 확대=대상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조례로 정하는 준농림지역에 모두 적용되며 기계식 주차장치 인정권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운동경기장은 수용인원 1백명당 1대, 음식점 유흥음식점은 50㎡당 1대, 종교시설은 1백㎡당 1대, 단독주택은 1백30-2백㎡당 1대, 공동주택은 1백20㎡당 1대.

〈교육〉

◆교육 기부금품 접수=각급 학교 학부모회 후원회 등이 학교 유지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음.

◆특별연구교사제 시행=2학기부터 초 중 고교 현장의 교육 문제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특별연구교사제가 시행된다.

생활정보

생활정보